

미국경제 현황 및 2007년 전망

2006. 11. 27

미국 경제는 올(2006년) 하반기 이후 조정을 거친 후 내년(2007년) 하반기부터는 EU보다 다소 높은 2.5~3%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3~4%대의 성장활력을 곧바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전체로는 2.4%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처한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 목 차 —

I. 現 經 濟 現 況.....	1
□ GDP 成 長 率	1
□ 실업률(Unemployment rate)	2
□ 물가 지수	3
□ 금리 現 況	4
□ 교역 現 況	6
II. 2007년 經 濟 前 望.....	10
□ 개 요	10
□ GDP 成 長 率 前 望	12
□ 經 濟 政 策 變 化	13
□ 노동생산성 前 望	14
□ 소비자 물가	15
□ 주택 시장 前 望	16
□ 장단기 금리	18
III. 시사점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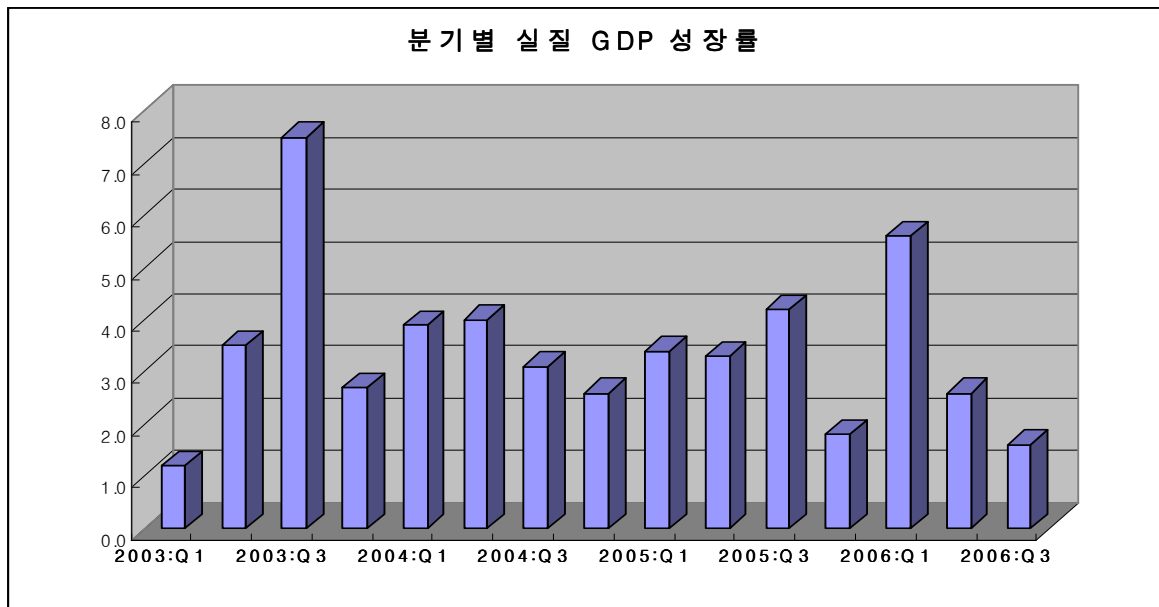
I. 現 經 濟 現 狀

□ GDP 성장률

< 부분별 GDP 성장률 >

(전기대비, 단위: 10억불, 연율 %)

	2004	2005	2006		
			1분기	2분기	3분기
GDP 성장률	4.2	3.5	4.8	2.6	1.6
GDP 실적	11,466	12,455.8	13,008.4	13,197.3	13,308.3
민간소비	3.9	3.5	4.8	2.6	3.1
(내구재)	6.4	5.5	19.8	-0.1	8.4
민간투자	9.8	5.4	7.8	1.0	-2.0
(설비)	7.3	7.5	8.29	-1.6	-1.4
(주택건설)	9.9	8.6	-0.3	-11.1	-17.4
수출	9.2	6.8	14.0	6.2	6.5
수입	10.8	6.1	9.1	1.4	7.8
정부지출	1.9	0.9	4.9	0.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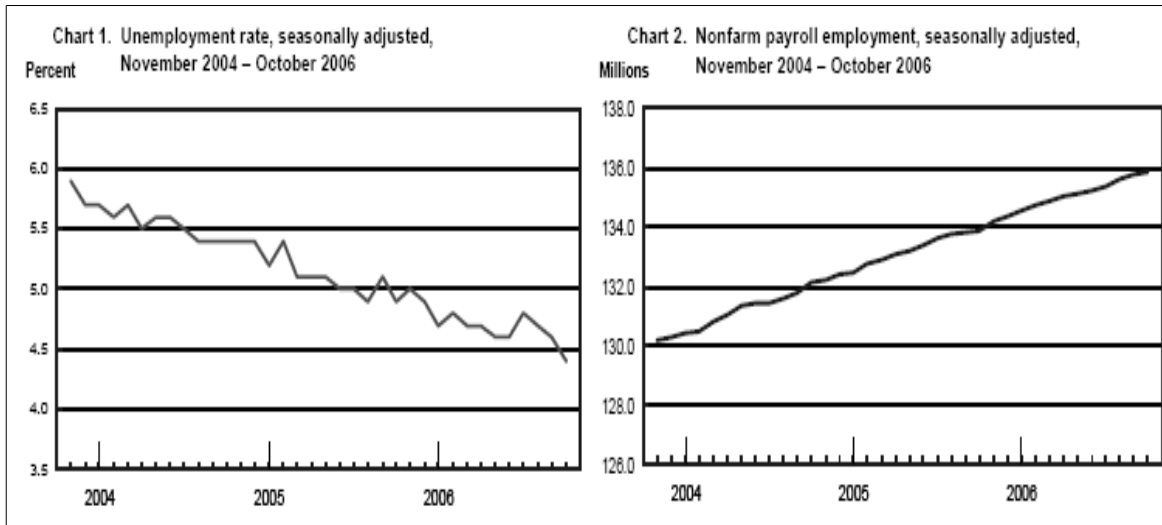
※ 자료: 美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 3/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1.0%포인트 감소한 1.6% 기록. 이는 전년동기 4.2% 대비 2.6%포인트나 낮아진 저조한 결과
- 3/4분기 들어 수입규모가 전기대비 6.4%포인트 증가한 7.8%(2조 2,900억 달러)를 기록, 큰 증가세 보임
- 민간투자의 경우 지난 4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금번 3/4분기는 지난 1991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 기록
- 또한 민간소비를 비롯한 정부 지출 역시 하락세 보임
- 다만, 개인가처분소득(Disposable Personal Income)은 3/4분기 3.7% 증가하였으며, 지난 2/4분기에는 1.7% 증가함
- 이러한 둔화 추세는 수년간 지속된 고유가 기조, 국제금리 상승과 함께 주택경기 하락, 소비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실업률(Unemployment rate)

-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면서 실업률은 4.4%로 감소
- 非농업계 일자리 수는 9월에 148,000개 증가에 이어 10월에는 92,000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은 여러 분야에서 대체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제조업 및 건설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음
- 시간당 인금은 전월대비 6센트 인상된 것으로 조사됨

<미국 실업률 및 고용율>



※자료: 美노동통계국(BLS)

□ 물가 지수

- 10월중 美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8로 전월에 이어 0.5%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가격의 경우, 지난 9월 7.2% 하락한데 이어 10월 다시 7.0%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 휘발유 물가지수는 10.7% 하락하였고 에너지 관련 서비스 지수 역시 2.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식품(Food)지수는 10월중 0.3% 상승한 반면, 의류(apparel) 및 숙박(lodging) 분야 지수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Table A. Percent changes in CPI for All Urban Consumers (CPI-U)

Expenditure Category	Seasonally adjusted								Un- adjusted 12-mos. ended Oct. '06
	Changes from preceding month							Compound annual rate 3-mos. Ended Oct. '06	
	Apr.	May	June	July	Aug.	Sep.	Oct.		
All Items	.6	.4	.2	.4	.2	-.5	-.5	-2.9	1.3
Food and beverages	.0	.2	.3	.2	.3	.4	.3	3.5	2.6
Housing	.1	.3	.2	.3	.2	.3	.0	2.2	3.0
Apparel	.6	.2	.0	-1.2	.9	.6	-.7	3.4	.5
Transportation	2.4	1.5	-.2	1.6	.2	-4.1	-3.1	-24.9	-5.0
Medical care	.4	.3	.3	.2	.4	.3	.3	4.2	4.0
Recreation	.3	.2	.1	.3	-.1	.0	.0	-.4	1.2
Education and communication	.3	.0	.3	.3	.3	.1	.2	2.4	3.0
Other goods and services	.0	.1	.6	-.2	.3	.5	.3	4.4	2.9
Special Indexes									
Energy	3.9	2.4	-.9	2.9	.3	-7.2	-7.0	-43.8	-11.3
Food	.0	.1	.3	.2	.4	.3	.3	4.0	2.6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3	.3	.3	.2	.2	.2	.1	2.3	2.7

※자료: 美노동통계국(BLS)

□ 금리 현황

- 경제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로 금리인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당분간 現 상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美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우려 확산
 - 물가상승세 둔화, 원유(WTI)가격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 기대
 -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반영하는 5년 만기 일반국채, 물가연동국채의 수익률 격차 감소(5월 중순 2.8% 포인트→최근 2.4%포인트)

< 미국 금리 현황 >

Instruments	2006 Nov 13	2006 Nov 14	2006 Nov 15	2006 Nov 16	2006 Nov 17	Week Ending		2006 Oct
						Nov 17	Nov 10	
Federal funds (effective) ^{1 2 3}	5.27	5.25	5.29	5.25	5.20	5.25	5.24	5.25
Commercial Paper ^{3 4 5}								
Nonfinancial								
1-month	5.20	5.19	5.20	5.20	5.21	5.20	5.21	5.20
2-month	n.a.	n.a.	n.a.	n.a.	n.a.	n.a.	5.18	5.18
3-month	n.a.	n.a.	n.a.	n.a.	n.a.	n.a.	5.16	5.19
Financial								
1-month	5.24	5.24	5.24	5.25	5.23	5.24	5.23	5.23
2-month	5.24	5.26	5.25	5.25	5.23	5.25	5.24	5.23
3-month	5.24	5.25	5.25	5.24	5.25	5.25	5.24	5.24
CDs (secondary market) ^{3 6}								
1-month	5.28	5.28	5.28	5.28	5.28	5.28	5.29	5.28
3-month	5.33	5.33	5.32	5.32	5.32	5.32	5.32	5.33
6-month	5.34	5.33	5.34	5.33	5.33	5.33	5.35	5.35
Eurodollar deposits (London) ^{3 7}								
1-month	5.32	5.32	5.32	5.32	5.32	5.32	5.30	5.32
3-month	5.37	5.37	5.37	5.37	5.37	5.37	5.36	5.36
6-month	5.37	5.38	5.37	5.38	5.37	5.37	5.38	5.38
Bank prime loan ^{2 3 8}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Discount window primary credit ^{2 9}	6.25	6.25	6.25	6.25	6.25	6.25	6.25	6.25
U.S. government securities								
Treasury bills (secondary market) ^{3 4}								
4-week	5.10	5.15	5.15	5.14	5.11	5.13	5.11	4.88
3-month	4.96	4.96	4.96	4.96	4.96	4.96	4.96	4.92
6-month	4.96	4.95	4.96	4.97	4.95	4.96	4.96	4.92
Treasury constant maturities								
Nominal ¹⁰								
1-month	5.17	5.24	5.24	5.22	5.19	5.21	5.19	4.97
3-month	5.09	5.09	5.09	5.09	5.09	5.09	5.09	5.05
6-month	5.16	5.15	5.16	5.17	5.14	5.16	5.16	5.12
1-year	5.03	5.01	5.04	5.06	5.02	5.03	5.03	5.01
2-year	4.76	4.74	4.80	4.85	4.76	4.78	4.76	4.80
3-year	4.66	4.63	4.69	4.75	4.67	4.68	4.67	4.72
5-year	4.60	4.57	4.62	4.67	4.60	4.61	4.62	4.69
7-year	4.60	4.57	4.62	4.66	4.60	4.61	4.62	4.69
10-year	4.61	4.57	4.61	4.66	4.61	4.61	4.64	4.73
20-year	4.80	4.76	4.80	4.84	4.79	4.80	4.83	4.94
30-year	4.71	4.66	4.69	4.74	4.69	4.70	4.74	4.85
Inflation indexed ¹¹								
5-year	2.42	2.41	2.45	2.53	2.48	2.46	2.42	2.51
7-year	2.35	2.34	2.37	2.44	2.39	2.38	2.35	2.45
10-year	2.29	2.28	2.30	2.38	2.33	2.32	2.30	2.41
20-year	2.22	2.19	2.22	2.28	2.25	2.23	2.24	2.38
Inflation-indexed long-term average ¹²	2.18	2.15	2.18	2.24	2.21	2.19	2.19	2.34
Interest rate swaps ¹³								
1-year	5.34	5.31	5.32	5.33	5.32	5.32	5.34	5.37
2-year	5.13	5.08	5.11	5.12	5.12	5.11	5.14	5.19
3-year	5.06	5.01	5.04	5.05	5.04	5.04	5.09	5.15
4-year	5.05	5.00	5.03	5.04	5.02	5.03	5.08	5.15
5-year	5.06	5.01	5.04	5.04	5.03	5.04	5.09	5.16
7-year	5.10	5.04	5.07	5.07	5.06	5.07	5.13	5.21
10-year	5.15	5.09	5.12	5.12	5.12	5.12	5.18	5.26
30-year	5.27	5.22	5.23	5.24	5.23	5.24	5.30	5.40
Corporate bonds								
Moody's seasoned								
Aaa ¹⁴	5.34	5.30	5.34	5.37	5.33	5.34	5.39	5.51
Baa	6.21	6.18	6.22	6.25	6.21	6.21	6.25	6.42
State & local bonds ¹⁵				4.17		4.17	4.19	4.30
Conventional mortgages ¹⁶				6.24		6.24	6.33	6.36

※자료: 연방준비은행(FRB)



※자료: 국제금융센터

□ 교역 현황

1. 수출입 총괄

<미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

년 도	수 출		수 입		수 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2000	780,419	12.6	1216888	18.7	-436,469
2001	731,026	-6.3	1,141,959	-6.2	-410,933
2002	693,257	-5.2	1,163,549	1.9	-470,291
2003	723,743	4.4	1,259,396	8.2	-535,652
2004	816,548	12.8	1,469,671	16.7	-653,123
2005	904,380	10.8	1,670,940	13.7	-766,560
2006(01~09월)	764,249	14.7	1,384,975	13.4	-620,726

※ 자료: KITA.net 미국무역통계

- 올들어 1~9월 수출 누계액은 7,64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하였음

- 이는 산업 자재 및 원자재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것임. 그러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엔진 등의 수출은 감소하였음
- o 2006년 9월까지의 총수입액은 1조 3,84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13.4% 증가

2. 무역수지 현황

- o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약 6,2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기 5,540억 달러보다 약 11.9% 증가

3. 지역별 수출입 현황

- o 9월중 대중국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전월대비 4.5%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수출은 1억 달러 감소한 46억 달러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9억 달러 증가한 276억 달러를 기록
- o 유럽연합과의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70억 달러규모로 전월의 110억 달러 대비 36% 감소
 - 수출은 9억 달러 증가한 18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31억 달러 감소한 255억 달러로 나타남
- o 멕시코와의 무역수지적자 규모 역시 4억 달러(6.4%)감소한 58억 달러를 기록

- 수출은 7억 달러 감소한 110억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11억 달러 감소한 169억 달러를 기록

4. 미국의 10대 수출교역국

(단위: 백만 달러, 누계, %)

국가명	2005		2006(1월~9월)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캐나다	211,420	12.6	172,614	10.3
멕시코	120,049	8.4	99,896	13.5
일본	55,409	1.9	44,161	7.8
중국	41,836	20.5	40,236	34.9
영국	38,629	7.4	34,220	17.8
독일	34,149	8.8	30,136	19.6
한국	27,670	5.1	24,235	18.3
네덜란드	26,496	9.1	22,798	16.3
프랑스	22,402	5.5	18,232	10.9
싱가폴	20,646	5.3	17,158	11.8

※ 자료: KITA.net 미국/한국무역통계

- o 미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캐나다로 올 들어 9월까지 7,64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o 對영국 수출은 유럽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무려 34.9% 증가한 약 400억 달러를 기록함
- o 또한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9월까지 300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하였음

5. 미국의 10대 수입교역국

(단위: 백만 달러, 누계, %)

국가명	2005		2006(1월~9월)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캐나다	287,870	12.5	229,380	9.6
중국	243,462	23.8	206,500	17.2
멕시코	170,198	9.2	148,355	19.1
일본	138,091	6.6	108,995	6.6
독일	84,813	9.8	66,088	6.3
영국	51,063	10.0	39,752	7.9
한국	43,779	-5.2	34,321	5.8
베네주엘라	33,965	36.1	29,070	14.3
대만	34,838	0.6	28,482	10.5
프랑스	33,847	6.4	27,505	9.9

※ 자료: KITA.net 미국/한국무역통계

-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캐나다로 9월까지 2,00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 對중국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II. 2007년 경제 전망

□ 개 요

o 향방을 알 수 없는 미국 경제

- 미국 경제가 2007년도 1.8~2.0%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3%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은 상황

o 불확실한 변수들

-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설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폭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한편, 약 3~4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폭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음
-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의 주원인이 되었던 국제유가는 하락국면에 접어들었고 연준(FRB)의 금리인상이 現 5.25%에서 유지됨에 따라 금리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美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또한 민주당이 지난 11월 7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모두 차지하게 됨에 따라 향후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 하게 되었음

o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의 해석 차이

- 미국 경제전망을 두고 해석이 달라지는 주요 쟁점은 주로 주택경기, 금리, 설비투자, 생산성, 그리고 쌍둥이적자 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됨
- **비관론자**의 경우 주택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주택가격에 대한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쌍둥이 적자 심화로 인한 달러화 가치 하락 가능성 등을 경고하고 있음. 또한 부진한 설비투자와 낮아지는 생산성 등을 함께 지적
- **낙관론자**는 단기적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나 10월 이후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는 한편,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따라 과거 공화당에 의해 거부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될 여지가 커지면서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에 따라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美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재정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o 2.4%대의 연착륙 가능성이 대세

-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기관들의 전망과 각종 선행지표들은 긍정적 예상에 힘이 더 실리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경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을 거친 후 2007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져 **연간 2.4%의 성장세를 보이며, 과거와 같은 3~4%대의 성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주류를 이룸.

□ GDP 성장률 전망

<미국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2006	2007
Merrill Lynch	3.3	2.0
JP Morgan	3.4	2.8
Goldman Sachs	3.6	2.2
Lehman Brothers	3.5	2.7
Citi Group	3.6	3.2
Deutsche Bank	3.1	2.3
Morgan Stanley	3.5	3.0
평균	3.4	2.6

※자료: 각종 투자은행 발표 취합

- 미국 주요 투자은행의 2007년도 평균 경제성장률은 2.6%대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에 의하여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하지만 Merrill Lynch를 비롯한 일부 투자은행들은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보다 다소 낮게 재평가함으로써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Merrill Lynch의 경우 2006년 3.3%대의 긍정적 전망치를 내놓은 반면 2007년도 경제성장률을 무려 1.2%포인트 낮춘 2.0%로 평가
- 또한 2006년 이후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2010년까지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5% 이하로 둔화될 전망

□ 경제정책 변화

- 지난 11월 7일 美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 양원을 모두 점령함에 따라 그간 공화당에서 주도했던 경제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됨. 하지만 변화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反기업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및 공화당의 상호 감시로 인하여 큰 폭의 정책 변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되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1) 외교 및 통상 분야

- 대외정책 추진 방식은 다소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의사결정 과정은 더욱 신중해질 전망
- 개방 기조 유지 하에 對中 압박 강화를 비롯한 보호주의 색채 강화가 예상됨
- 또한 중동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이 기대됨에 따라 미국 내 석유소비 감축정책과 더불어 유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정책

-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채권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美 달러화 가치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방비 감소, 복지와 교육 관련 예산 증가 등으로 내수 소비 여력 커질 것으로 예상
- 첨단기업에 대한 지원 증가로 신기술, 바이오, 에너지 분야 등에서 활발한 투자가 예상되고 있음
-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로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게 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하강 속도를 완화 시킬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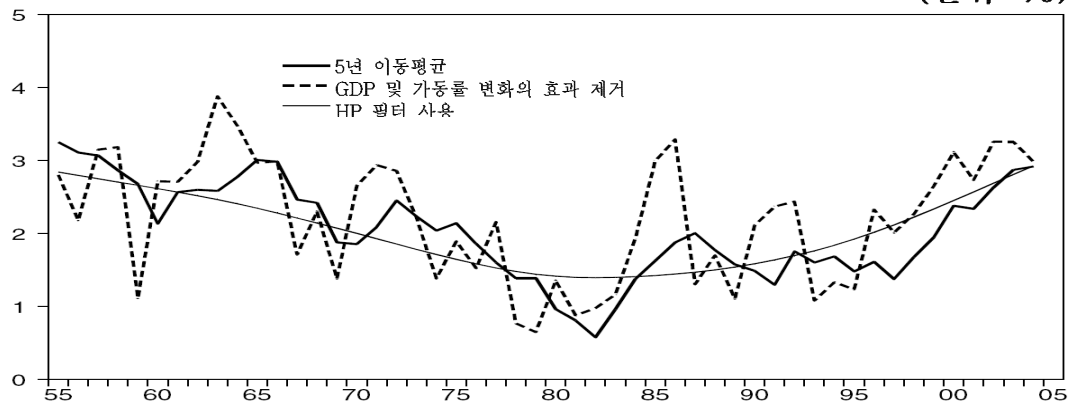
□ 노동생산성 전망

○ 미국 중기 노동생산성 연평균 2.5% 정도 증가 예상

- IT 부분의 성능개선과 가격하락에 힘입어 투자확대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가 이루어질 전망
- 또한 신기술 개발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시차에 비추어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활용만으로도 상당한 생산성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 생산성 증가율의 장기 추세>

(단위: %)



- 향후 10년간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0~2004년까지의 빠른 증가세보다는 둔화되겠지만, 1995~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향후 10년간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 전망>

전망자·전망기관	(전망시점)	생산성 증가율 (연평균)	평가부문
Robert J. Gordon	(2006)	2.6%	비농업부문
CEA	(2006)	2.6%	비농업부문(향후 5년간)
Jorgenson/Ho/Stiroh	(2006)	2.6%	민간부문(최저 1.4%~최고 3.2%)
Martin N. Baily	(2006)	2.5%상회	비농업부문
CBO	(2006)	2.4%	비농업부문
SSA	(2005)	1.7%	경제 전체
Bernanke	(2006)	2.5%내외	비농업부문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06-83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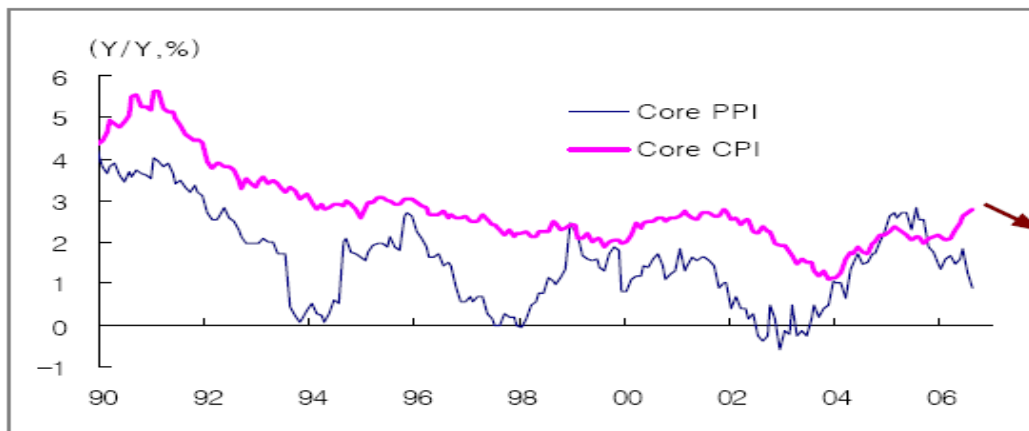
- 다만 경제성장이 고용보다 더 빠르게 둔화됨에 따라 생산성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NABE(전미기업경제학자협회)는 2006년 및 2007년중 노동 생산성이 연평균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소비자 물가

- 물가는 유가 하락 및 금리인상의 누적효과로 인해 올해보다 상승압력이 다소 둔화되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던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세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감소함

- 연준(FRB)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폭이 서서히 완화됨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아짐
- 전반적인 경기둔화에 인해 총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보임
- o 다만 노동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잔존하고 있어 2007년 美 경제에는 다소 불확실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단위노동비용은 올 1/4분기 중 1.98%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3.8%로 집계됨

<core CPI, core PPI 상승률 추이>



※자료: Bloomberg 통신

□ 주택 시장 전망

- o 주택시장 경기 변화는 향후 美 경제 전반에 키 이슈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음
- 주택시장의 경기가 지난 1995년 IT산업 거품붕괴와 같은 양상을 보일 경우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것으로 예측됨

- 하지만 **현재까지는** 주택가격이 큰 폭 하락할 가능성이 낮는데다가 유가하락, 고용 호조, 기업투자 확대,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이 주택경기 둔화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주택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美 경제는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됨**

o 주요 관련기관 및 투자은행의 주택경기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주택건설업협회(NAHB):**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Morgan Stanley:**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높으나 모기지금리 안정에 따른 수요 증가, 신규주택 공급 급감에 따라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연준(FRB):** 금융시장에 반영된 주택가격 전망 분석결과, 2007년 중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보일 것으로 전망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¹⁾>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3/4 ²⁾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기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1.2	-1.5	1.6	0.2	1.4	1.8	2.5	1.5
주택	모기지은행 연합		1.1	2.4	1.7	-0.7	3.8	1.5	1.6
신축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2.4	-0.7	-0.2	0.3	1.4	2.2	2.6	1.6
주택	모기지은행 연합		2.5	1.3	-0.5	-1.6	4.8	1.4	1.0
HPI ³⁾	주택건설업협회	..	3.0	8.1	1.5	0.0	-1.0	-0.5	0.0

※주: 1) 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 실적치 3) OFHEO의 주택가격지수(HPI)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06-93호 참조

□ 장 · 단기 금리

- 연준(FRB)은 기준금리를 지난 8월 이후 5.25%로 동결 시킨 상태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경기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연착륙 국면으로 전개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연준(FRB)은 美 경제가 연착륙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나 경기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회피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7년도에는 중립적 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음

<美 장, 단기 금리 전망>

(% EOP, as of 24 October 2006)	3Q06	4Q06	1Q07	2Q07	3Q07	4Q07	2005	2006	2007
Fed Funds	5.25	5.25	5.00	4.50	4.25	4.00	4.25	5.25	4.00
3-Month T-Bill	4.89	5.08	4.90	4.45	4.15	3.95	4.10	5.08	3.95
3-Month LIBOR	5.36	5.35	5.10	4.60	4.35	4.10	4.54	5.35	4.10
2-Year T-Note	4.71	4.85	4.50	4.25	4.00	3.90	4.40	4.85	3.90
5-Year T-Note	4.59	4.70	4.50	4.25	4.05	4.05	4.35	4.70	4.05
10-Year T-Note	4.64	4.75	4.50	4.30	4.10	4.20	4.39	4.75	4.20
30-Year T-Bond	4.77	4.90	4.65	4.45	4.25	4.35	4.54	4.90	4.35

※자료: Merrill Lynch社 2007년 美 금리전망 보고서 참조

- 미국 내 주요 투자은행 중 하나인 Merrill Lynch은 10월 발표된 금리 전망 보고서에서 전망치를 다소 축소 조정하였음

III. 시사점

□ 양호한 소비경기와 산업생산이 전체 경제를 견인하며 완만한 성장세 유지 예상

- 고용 개선 및 임금소득 증가의 파급효과로 소비지출 증가가 기대됨
 - 또한 달러화 약세 지속과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절상으로 美 기업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전망
-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연준(FRB)의 긴축정책 중단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 개선과 민간소비의 완만한 성장세가 기대됨

□ 잠재성장률 3.5%에서 2.5%로 하락

- 노동참여 인구 비율 감소, 기업들의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 위축, 베이비붐세대들의 은퇴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 등의 여파로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을 비롯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국가들에서는 수출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기업들의 경우 내수 시장 비중을 높이고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는 등 미국의 성장 기조 변화에 대비한 적절한 전략 마련이 시급함

□ 美 중간선거에 따른 정책 변화 불가피

- 지난 11월 7일 실시된 美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 양원과 주지사 선거 모두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한미 FTA 협상, 북핵문제 대처방식 변화 등도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과거에 비해 민주당 내에서도 개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협상과정에서도 일방 주의적 태도는 다소 줄어들 전망
 - 다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2007년 7월 만료되는 통상촉진권한(TPA)의 연장이 불투명하며 이는 향후 한미 FTA협상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북핵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북·미 양자협상 주장과 부시행정부의 국방장관 경질 등에 비추어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이 다소 후퇴 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對美 수출 경기에는 긍정적 영향 미칠 전망
 -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증대 정책에 따라 미국의 소비 회복 가능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부불공정 관행 등에 대응하여 중국산 물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위안화 절상압력 강화 등의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 상품의 대미 직접 수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끝)